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정창덕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 18호

# 송호신문 창窓

## 전문취업상담을 위해 라이즈업 파트너스와 협력 체결하다




지난 11월 9일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우리대학교는 기업교육연구소인 라이즈업 파트너스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라이즈업 파트너스 장성미 대표, 황선아 이사, 표지혜 선임강사와 우리대학교의 임용광 기획실장, 김주용 산학협력단장, 이재용 취창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은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우리대학교 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교육효과의 증대 및 산업인력의 수준을 향상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 상호 교환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라이즈업 파트너스 장성미 대표는 "송호대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송호대학교만의 전략과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재개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진 기자

## 2018년, 문화콘텐츠융합ICT과 신설

우리대학교는 '문화콘텐츠융합ICT과'를 신설하여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문화콘텐츠융합ICT'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기술과 공연문화예술장르의 융합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하여 창의적인 공연을 제작하는데 앞장서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과이다.

본 과는 ICT기술을 접목시킨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무대기술과 배우의 연기 예술을 접목하여 공연, 시연, 발표 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존의 국내 공연예술학과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송호대학교만의 차별적이고 특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ICT기술과 함께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공연제작을 지향한다.

학과는 3년제(4학기제)로 운영하며,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실습 및 공연 제작(JCD연구소, 미래융합창조문화협회, KBS 미디어 센터), 졸업 후 현장 취업 연계를 보장한다.

한편, 문화콘텐츠융합ICT과는 2018학년도 신입생 25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한, 김은경 기자

## 횡성 한우 특화 메뉴 시식회 열어




우리대학교는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5시 횡성군청 구내식당에서 횡성한우 특화메뉴(부산물) 시식회를 가졌다.

횡성군이 주최로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주용 교수)과 2017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사업책임자: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김나영 교수)에서 협력하여 진행한 횡성한우 특화메뉴(부산물) 시식회는 횡성한우 및 부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홍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화메뉴와 부산물 메뉴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홍콩 윌슨그룹 배니언윙 회장과 링고윙 사장, 브랜드 담당자 멜로디 챈, 횡성한우 수입실무자 카린느 곽, 홍콩 시티슈퍼와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참석한 바이어 등이 참석했다.

시식메뉴는 10가지로 특화메뉴 5가지(불갈비, 스테이크, 육사시미, 소세지 등)와 부산물 메뉴는 5가지(곱창구이, 대창볶음밥, 염통볶음, 도가니볶음 등)로 구성되었으며 김나영 사업 책임자(송호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의 지도로 일자리 창출과정 참가자 20명이 요리했다.

이번 횡성한우 특화메뉴(부산물) 시식회는 횡성한우 홍콩수출 파트너 및 태국 바이어에 대한 횡성한우 특화메뉴 시식으로 수출 홍보효과 극대화 및 6차 산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출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기대한다.

이 한 기자

##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 사업 수료식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송호관 평생교육직업세미나실에서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의 목적은 횡성한우를 이용한 신메뉴개발 및 가공제품을 통한 조리전문 인력양성과정 및 식육처리기능 인력 양성과정으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횡성군이 주관하여 송호대학교 산합혁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횡성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3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병한 횡성부군수, 김옥환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최성희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계장, 손현주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주무관, 류호진 원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과장, 엄순태 원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팀장, 상지대학교 정구용 교수, 횡성 ㈜케이프라이드 김현준 대표,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 김주용 산학협력단장, 최연임 산학협력부단장, 김나영 사업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명한 부군수는 "횡성한우는 국내정상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맞춰 횡성한우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과 양성된 가공제품 조리 전문인력은 우리군 한우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 기자



## 송호도서관, 책 읽는 향기 행사 개최



우리대학교 도서관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는 향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목적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재학생들의 전문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폭넓은 교양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본 행사는 3가지(독서퀴즈, 다독자, 우수이용자)로 진행한다. 독서퀴즈는 매주 월요일 12시 진선미관 앞 게시판에 게시된 독서퀴즈문제를 확인하여 진선미관 2층 도서관 대출대에 비치된 답안지에 작성 후 제출하면 주차마다 문제 정답자 중 5명(총 20명)을 추첨하여 각 1명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독자는 행사기간 중 전자도서관시스템 기준 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대출자를 선정해 다독자 1명에게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한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포인트 기준 : 로그인 +1, 희망도서신청 +2, 도서대출 +3, 연체도서 -2)

우수이용자는 행사기간 중 매일 진선미관 2층 도서관 대출대에 비치된 방문일지를 작성(1일 1회 인정)하여 방문일지 기준 최다 방문자를 선정 후 우수이용자 1명에게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송호마일리지 30점, 수상자 50점이 주어진다.

도서관 신보라 사서는 "매년 2학기마다 시행하는 행사에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한 기자

## 우리대학교, 횡성군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10월 25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횡성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대학교는 원주정병원, 원주실버요양병원, 웰리힐리파크, ㈜케이프라이드, ㈜씨엔케이푸드 등 5개의 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외 우수기업 22개 업체와 사무·관리직, 생산직,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상담 및 현장 채용면접 등이 진행되었다.

구직자의 취업성공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을 제공하고 지문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최 측에서는 취업박람회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횡성군내에서 실업자나 구직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기업체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웅지 기자

## UCC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10월 24일 오전11시 송호관 2층 평생직업교육 강의실에서 우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한 'UCC 공모전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본 대회는 하브루타 학습법(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거꾸로 학습법(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강의실에서 토론이나 과제 수행), 문제중심 학습법(현실적인 문제를 다양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며 학습을 진행)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소개 또는 홍보영상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팀(임상병리과), 우수상 2팀(방사선과, 간호과), 장려상 3팀(보건행정과, 치위생과 2팀)으로 총 6팀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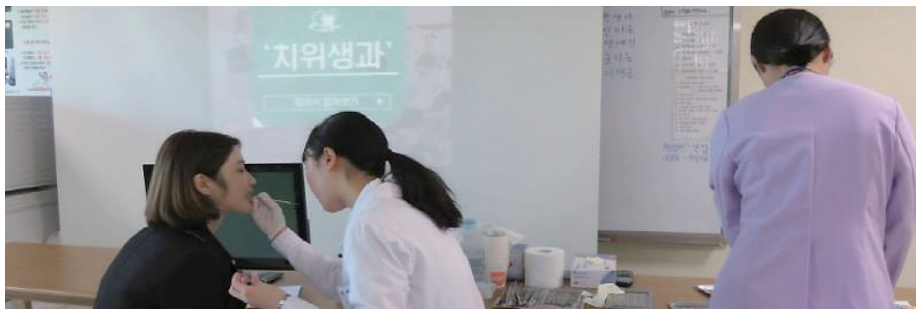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최우순 교수가 총장직인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입상한 UCC 작품은 학교 홈페이지 송호소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상병리과 2학년 김수현 학생은 "처음 진행하는 UCC 제작이어서 모두들 서툴렀지만 서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것 같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작품을 만들어보니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이 되었고 무엇보다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한 기자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다




지난 9월 11일 우리대학교의 2018년도 수시 1차원서 접수가 진행됐다.

수시 1차 원서접수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우리대학교에서 방문 면접을 실시해 학과 소개 및 지원학과 체험 등이 이루어졌으며, 수시 2차 원서접수는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는 문화콘텐츠융합ICT과가 새롭게 모집을 시작했다. 입학처 통계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융합ICT과의 경쟁률은 2.20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원 현황은 간호학과(경쟁률 9.00)가 가장 높으며, 방사선과 5.39의 경쟁률, 치위생과 5.04로 뒤를 따른다.

김 진 기자

## 학생생활상담실 상담수기 공모전

우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상담수기 공모전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상담수기 공모전은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상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필요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송호대학교 재학생, 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생활상담실 상담 유경험자(개인상담/집단상담)이다. 주제는 상담경험을 통해 도움이 되었던 점(진로, 성격, 학업, 심리, 적응문제 등), 상담경험을 통한 변화 등이다.

프로그램 접수방법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상담수기 공모전 안내-첨부파일 다운로드-상담수기 공모전 양식 작성 및 제출' 순을 따르면 된다.

단, 양식을 작성할 때는 상담경험을 에세이 자유형식으로 작성 후 제출은 이메일(career1004@songho.ac.kr) 로 송부하면 된다.

수상작 선정 방법은 학생지원처장, 부처장, 전임상담원이 심사하고 심사기준은 구체성(40점), 논리성(30점), 진실성(30점)으로 총합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수상자에게는 송호마일리지를 참가상(30점), 장려상(50점), 우수상(70점), 최우수상(100점) 각각 제공하며, 장려상(3명,10만 원), 우수상(2명,20만 원), 최우수상(1명,30만 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은경 기자


## 송호대학교 대표 신문사 窓(창) 신입기자 모집

◆모집대상 : 송호대학교를 다니는 17학번 학생 누구나 가능해요

◆지원자격 :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사진촬영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

◆기자특전 : 학생기자 임명장 수여
기자 특강 및 신문사 이용 특혜
지도 교수님, 선생님, 기자들과 즐거운 학교생활
특별 장학금 지급

◆지원방법 : 개별 면접

◆지원문의 : 편집장 전민지
(010-7277-1226 / minjee0621@naver.com)

##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우리대학교 창조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서식은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 학부모 등 내빈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1893년에 만들어져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과 원칙을 담은 내용을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의식이다. 2년간의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손에 촛불을 든 채 가운을 착용하고 선서식을 거행한다.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이어받으며,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의미하고, 가운은 이웃을 따스하게 돌보는 간호정신을 상징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간호학과 1학년 김슬비 학생은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토대로 제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멋진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전했다.

조준연 기자

## 치위생과, 제 4회 미소제 행사




지난 11월 3일 오후 2시 우리대학교 치위생과가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4회 미소제'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예비 치과위생사이자 미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갖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평 부총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기평 부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치위생과 전임 교수들이 예비 치과위생사인 2학년 학생들에게 핀을 달아주며 격려해주었으며 선서식과 함께 치위생과 1학년 학생들의 공연과 3학년 학생들의 축가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치위생과 2학년 강지애 학생은 "이번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통해 아직은 학생이지만 치과위생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서를 하면서 미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한 기자

## 방사선과, 제 8회 '송방제' 개최




우리대학교 방사선과가 지난 11월 10일 오후 4시 창조관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제 8회 '송방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방제에는 정창덕 총장, 장수호 목사, 방사선과 교직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송방제는 1,2학년 학술발표와 함께 예비방사선사 선서식을 통해 방사선사 윤리강령(인간존중 및 직업윤리와 기술향상, 적정한 방사선 관리, 직업적 품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을 선서하여 방사선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직업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학술의 장"을 주제로 제7대 학회장 석철우 학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창덕 총장의 축사, 장수호 목사 기도, 학과장 격려사가 이어지고 방사선사 선서식, 멘토멘티 선서식, 2학년들의 논문 발표, 1학년 실험실습발표,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화합의 장"을 주제로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 방사선사 국가고시 응원 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최용진은 "송방제에서 비골 측방향 촬영 실습을 주제로 선배들과 많은 귀빈들 앞에서 발표 했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준비한 것보다 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한 시간이 추억으로 남을 거 같고 오늘이 좋은 경험으로 남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행사로 인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방사선과 화이팅!"이라고 전했다.

이 한 기자

## 대한방사선사협회 강원도회 제4회 학술대회 개최



지난 9월 24일 오후 12시 대한방사선사협회 강원도회가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강원도회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학합동으로 개최되었으며 강원도내 4개 대학(송호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연세대학교)이 참여했다.

본 행사는 최첨단의료장비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술대회를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방사선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열렸다.

우리대학교에서는 방사선과 학생(1, 2학년)들이 방사선과 교수진들의 지도하에 참여했으며, 현직 방사선사의 논문발표에 이어 학생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우리대학 방사선과 2학년 석철우 학생은 방사선과 김갑중 교수의 지도하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쇄골 모델을 이용한 정형외과 수술에 대한 유용성과 활용가능성 평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방사선과 1학년 정병기 학생은 "졸업 후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님들의 특강과 논문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방사선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 우리대학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같은 자리에서 논문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한 기자

## 유아교육과, 한강유치원 견학

지난 9월25일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 전원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에 소재한 한강유치원에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본 견학은 유치원현장을 통해 예비 유아교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견학 일정은 유치원의 원장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원내 시설 소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재교구의 활용 및 방법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가한 유아교육과 1학년 정다빈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론이 실제 현장에 접목되는 모습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전공서적에서 접한




각종 교재교구와 교육 관련 자료를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서 보니 신기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어 얼른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백수현 기자

## 호텔외식조리과, 졸업을 앞두고 전시회를 열다




지난 10월 23일 호텔조리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우리대학교 웰빙관 앞 테라스에서 졸업 작품 전시회와 코스요리를 준비하며 학교 관계자 및 귀빈들을 대접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2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고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1학년 학생들은 전시회에 오신 귀빈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수재료를 이용하여 5가지 코스요리를 함께 만들어 전시회 참석한 귀빈들을 대접했다.

전시회에서는 24개의 작품과 8개의 팀이 각기 다른 분야의 요리와 테이블 셋팅을 하여 감상을 하는 이들에게 보는 재미와 식욕을 자극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손석범 학생(호조과2)은 "뜻 깊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목표를 위해 알차게 생활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라며 "우리를 위해 뒤에서 뛰어다니시는 조교님, 함께 생활하며 고생한 2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 진 기자

김동영 방사선사는 우리대학교 방사선과를 졸업한 선배로서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임상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선과 선배의 소중한 한마디가 국가고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 "거침없이 즐기고, 한없이 웃었다 말하고 싶다!"



김동영 남양주 원병원 방사선사
(방사선과 12학번)

매 순간, 일 분 일 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가고시를 준비 하는 후배들의 심정을 누구 보다 잘 압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힘이 든다고 힘든 생각들로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오히려 즐거운 생각들로 채우고 매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1.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12학번 졸업생 김동영입니다.

현재는 남양주 원병원에서 방사선사로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우리대학교 입학 동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송호대학교 방사선과를 추천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송호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타 다른 대학교들보다 졸업 후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3.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장비로 환자의 영상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여 직·간접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생각했던 직장인 병원에서 방사선사로서 업무에 종사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과라는 전공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선배님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공부할 땐 하고 놀 땐 놀자"라는 것이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놀아야 할 상황이 되어서 같이 즐기고 어울릴 때는 어느 다른 과들보다도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재밌고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5. 기억에 남는 추억을 떠올린다면?**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었던 3학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동기들끼리 제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힘들게 공부하고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먹었던 호식이 치킨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동기들끼리 국가고시가 끝나고 난 후에 다 같이 모여 놀러 가서 먹었는데, 그때는 그 맛이 나질 않더군요.

**6.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일 감정이 격해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국가고시를 치르고 난 후에 합격통보를 기다리다 발표를 하는 날에 부모님과 함께 방사선사 합격 문자를 봤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후배님들도 국가고시를 준비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많이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만 꾹 참아내어 잘 버티면 반드시 꼭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도 재학시절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총 12회의 모의고사 중에서 3회만 합격했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곁에서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합격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나 보게 될 텐데 점수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도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과가 아니니까 항상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화이팅!!!

이 한 기자




문성환 간호사는 우리대학교 간호과를 졸업한 선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며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
간호과 선배의 대학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국시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을 후배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 "지행합일, 나의 부족한 부분은 더 알아가며 필요한 이에게 나누는 삶을 살자"



문성환 강동성심병원 간호사 (간호과 15학번)

여러분의 삶에서 좌절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당장의 힘듦과 어려움을 미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호대학교 간호과 15학번 졸업생 문성환입니다. 올해 졸업 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의 내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대학교 입학동기는요?**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 보다 대학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남들이 볼 때는 작은 대학일지 몰라도 저에게 큰 기회를 준 송호대학교 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되었고, 다른 대학교에 비해 취업률 또한 높은 부분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기에 입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3.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에서 배우는 간호라는 뿌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의학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매력은 어느 전공에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선배님의 대학생활을 어땠나요?**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이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이 넘어가도록 열정적이시면 쉬는 시간인지 눈치 채시도록 헛기침 정도는 하는 센스 있는 학생이었고 동기들이 좋아하는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5.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나요?**

입학식에서의 만남이 졸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입학식에서 만난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면서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추억은 횡성 시내에서 점심시간마다 동기들과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친구들과 졸업 후에 같이 횡성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다들 각자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쉽네요.

**6.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 웃으면서 알차게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일어나지 않을 순간들이기 때문에,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후회가 되지 않도록 즐기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다는 힘찬 사명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 공부에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큰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항상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현 기자



# 우리대학교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취재한 분들은 우리들 주변에 계시는 이명숙 여사님과 정복순 여사님이다.

이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각 건물마다 지정되어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기숙사나 학교 내 복도와 화장실 등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많은 공공장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깨끗이 청소 한다.

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여사님들께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시행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한결 수월하고 자발적으로 분류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다만 여사님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바닥이나 다른 시설물 주변에 함부로 침을 뱉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던 방사선과 1학년 이재형 학생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지만 이렇게 종종 눈에 들어오는 담배꽁초라던가 쓰레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동참하면 좋겠네요"라고 전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 작은 쓰레기라도 반드시 구분지어서 분리수거함에 넣어주는 배려가 깨끗한 우리대학교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 진, 김웅지 기자









학과 탐방

# 뷰티케어과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뷰티케어과를 소개합니다.










1. 뷰티케어과는 어떤 과인가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 소양인 아름다움과 건강의 개념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미용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과입니다.

예술과 미용을 융합하여 인간의 미적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습을 통한 전문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인 NCS의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뷰티케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 뷰티케어과만의 특별한 점

매주 수요일마다 교내 뷰티케어과 1, 2학년이 함께 모여서 진행되는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활동은 상호실습으로 이루어지며 교수님의 지도하에 멘토링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각자의 방법으로 실습연습을 하는 것으로 현장의 테크닉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엔 메이크업 방송분장사 3급과 발관리사 2급(민간자격증) 시험을 응시합니다. 수업시간 외 별도로 학과장님 외 겸임교수님, 외래교수님 분들이 직접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도와주십니다.

한 달에 한번 피부, 헤어 국가자격증 기능사 시험을 저희 학과에서 검정을 준비하여 시험장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 부스 지원(페이스페인팅, 경락, 네일)도 하며 횡성 한우축제, 횡성더덕축제, 횡성와락축제, 평생직업축제 등에 학생들이 매번 나가서 학과 홍보 및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 뷰티케어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자연계열의 2년제 학과로써 1학년부터 피부, 메이크업, 네일, 헤어의 자격증시험을 중점으로 학습하며, 2학년 2학기부터 실습학기제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테크닉을 수업에 병행하여 배웁니다.

과목 중엔 미용현장실습 1 2 3 , 뷰티 매니저먼트 현장실습 1 2 3, 의사소통능력(cs), 창업마케팅, 기초 피부관리실습, 기초헤어디자인, 기초메이크업, 발관리 이론 및 실습, 뷰티일러스트레이션, 공중 보건학, 미용경영(cs), 대인관계(cs), 네일아트디자인 1, 응용 피부관리, 살롱트리트먼트, 응용헤어디자인, 화장품학, 기초바디관리실습, 헤어컬러아트1, 헤어스타일링1, 응용메이크업, 아로마/림프관리/미용색채디자인/헤어스타일링2/한국형 특수 관리, 네일아트디자인2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기초메이크업, 기초바디 관리실습 등 미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2학년 2학기에는 현장실습, 뷰티매니지먼트 라는 실습학기제 과목이 있습니다.

취득자격증엔 국가- 미용사 면허증, 마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자격증과 이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는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세미퍼머넌트 메이크업 자격증, 네일강사 자격증, 공연예술분장사 자격증, 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증, 발관리사 자격증, 타이마사지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4.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분장사, 뷰티컨설턴트, 화장품회사 및 화장품관련 연구기관, 네일살롱 및 뷰티샵 경영,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 미용고 교사, 메이크업숍, 헤어숍, 미용학원 등 다양한 분야로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필요한 자격증들을 정규 수업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졸업 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뷰티케어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뷰티케어과 학생 여러분! 무언가에 빠지지 않고 살 순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 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평범 하려고만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뷰티에 빠져 뷰티를 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실습위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게 되어 힘들겠지만 굳은 결심과 많은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멋진 미용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여 시대에 맞추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 미용인으로서 성장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백수현 기자

교·수·칼·럼

# 학교와 지역사회는 하나다!



박 달 수 교수
(송호대학교 스포츠레저과)

각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개방, 운영하는 21세기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이다.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학교는 서로의 필요성을 가지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야한다.

모든 대학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중심 학교로 전환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과 상생 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사업을 지역과 연대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특성화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에서는 학교와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는 고정적으로 구성된 원형적(原型的)인 사회가 아니라 유동적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종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폐쇄적인 지역적 조건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며, 원형적이며 고정적인 지역사회는 허물어져가고 있으므로 고립된 지역사회는 타 지역에 비하여 발전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며 지역사회가 학교의 존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학교도 동참한다면 원활한 소통을 이루며 급성장하는 지역발전이 될 것이다.

시대의 전진이나 사회의 변화가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비추어 학교교육의 지역화를 생각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고립된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는 향토사회에서 지방사회, 국가사회 나아가서는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만큼 언제나 향토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로까지 안목을 넓혀 지역사회를 구상하고 교육의 흐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오늘의 지역사회는 근대이전과 같이 정적(靜的)이며 고정적으로 구성된 원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動的)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또 오늘날의 학교는 학문은 물론 새로운 사회건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교육에 반영시키려는 것이 지역사회교육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생활과 학교교육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구실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대학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수·칼·럼

# 방사선의 활용



이 주 영 교수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방사선을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위험보다 훨씬 큰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X선 없는 병원을 생각할 수 없다.

방사선을 발견한 지 100여년이 넘는 동안 방사선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 수는 원폭 사망자까지 합쳐 약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 X선, CT, PET 등 방사성핵종으로 질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암을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구한 사람 수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가장 활발한 방사선 이용은 의료 분야이지만 그밖에도 방사선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도 곧 방사선 에너지인데 원자력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동력인 전력을 얻는다. 한 나라의 국민의 평균수명은 개인당 사용하는 에너지량에 정비례하여 늘어난다.

또한 금속판이나 종이의 생산, 캔 음료 생산을 포함하여 많은 제조업에서 방사선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철골 구조물이나 도시가스관 용접부 검사하는 경우에도 방사선투과검사가 이용된다. 물질의 구조를 밝혀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신진대사를 추적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사기나 붕대 같은 의료 용품이나 화장품은 방사선으로 멸균하여 세균의 감염을 막는다.

방사선 육종을 통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이 많은 농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화훼 작물을 만드는데도 방사선이 활용된다.

현대 문명의 필요조건인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도 방사선이 필요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에서 X선 검색기가 없는 보안 요원이 수하물을 열어 일일이 검사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공항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할 것이다.

방사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 실체를 사람의 오감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사선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기도 한다.

방사선은 인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천연에 늘 존재하는 일정의 에너지의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주변의 이러한 방사선을 바로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도움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

# 2학기를 마치며…

### 보건행정과 1학년 조 승 현



2학기를 마치면서 느낀 점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과생활에도 만족한다는 것이다. 나는 집이 강원도가 아닌 대전이라 입학 후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런 걱정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1학기부터 해왔던 다온 총학생회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형들과 누나들 그리고 나와 뜻이 맞는 다른과 친구들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과 친구들인 정욱이, 시환이, 유비, 수진이, 혜수, 진희 그리고 다온 총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은이 누나, 주영이 누나, 수훈이 형, 혜림이 누나, 다래 누나, 은영이 누나, 용훈이 형, 다희 누나 그리고 재호, 영빈이, 승표 덕분 인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은 시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 방사선과 1학년 정 택 은



2학기 때에는 방학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튜터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추석 연휴 동안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되지 않는 시험을 치렀고 학술제때는 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연습도 열심히 했다. 1학기 때 보다 2학기가 훨씬 기억에 남는다.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사회복지학과 2학년 이 효 신



다른 대학교에 비해 근로 장학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숙사 시설과 인터넷이 잘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동아리의 개수나 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기숙사의 경우 11시가 통금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10시에 문을 닫고 요일에 따라 열지 않거나 일찍 닫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시내로 나가는데 불편함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주말에 특히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시내를 나갈 경우 택시를 불러서 가야하는데 왕복비가 대략 만원이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이 지불되는 거 같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앞으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나 기숙사생들은 급식이 의무가 아니라 희망항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관광(대명)리조트학과 1학년 이 현 우



송호대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도시와는 다르게 공기가 좋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이 건강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른 대학교처럼 학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식단이 짜여져 나오기 때문에 식단관리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3500원이라는 돈에 비해 살짝 아쉬웠다. 개선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학교에서 상봉·구리행 셔틀버스 타임이 지금은 2번 밖에 없는데 셔틀버스 타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조준연 기자

# 제 13회 횡성한우축제에 가다!



지난 10월 19일 횡성군 대표 축제인 제13회 횡성한우축제가 5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횡성군청이 주최하며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와 횡성문화재단이 주관을 맡아 개최했으며 섬강 둔치와 원도심 및 전통시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횡성한우축제는 13번째를 맞이하며 어김없이 횡성 뿐 아니라 강원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할 뿐 아니라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횡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이벤트 및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2017년 횡성한우 축제는 우편동전 발행, 프린지 공연, 한우캐릭터존, 야간 빛 축제 등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볼거리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먹거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우셀프식당,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전통주 무료시음 및 체험,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횡성군이 자랑하는 섬강을 배경으로 축제 기간 내내 길거리가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각과 미각을 자극 시키는 각가지 행사가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횡성한우 발골 이벤트로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한우의 발골과정을 관광객들 앞에서 부위별로 해체하는 해체쇼 이벤트도 선보였다.

이번 행사기간 외 추가적으로 횡성군에서는 평창 올림픽 G-100일을 축하하는 행사인 '희망의 불빛, 강원에 퍼지다'를 타이틀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과 붐 조성을 목표로 행해지는 콘서트도 열었다. 이 콘서트는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인근 주변 도시에서 개최되는 콘서트이다. 또한 횡성이 자랑하는 우리 쌀 어사진미가 홍콩에 첫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우리대학교에서 부산물 수업에 참여 하고 있는 횡성주민단체가 홍콩에서 온 바이어를 위한 한우 특수부위를 이용한 코스 만찬요리를 준비하여 바이어 뿐 아니라 횡성군청 관계자들까지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도 마련되었다.

축제에 직접 참여한 정주웅(호텔외식조리과 1)학생은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횡성 한우축제에 참여해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행사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니 힐링되는 것 같아 좋다" 라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다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참여할 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 진, 김은경 기자

## 2017 횡성한우축제와 함께하는 '섬강 산소길 걷기' 행사

횡성군은 새마을금고와 강원일보사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21일 '2017 섬강 산소길 걷기행사'를 횡성 섬강둔치 횡성한우축제장 메인무대에서 개최했다.

참석대상으로는 횡성군민과 행사참가자 누구나(1000여명) 참여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섬강 산소길 반환점에서 행운권을 지급하여 도착지점 메인무대에서 행운권을 추첨하고 각종 기념품을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했다.

걷기 코스는 축제장 메인무대에서 출발하여 수백교를 반환점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11㎞ 여정으로 진행되는 1코스와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해 중간 합수 돌다리로 돌아오는 8㎞의 2코스가 있다.

섬강 산소길 걷기 행사는 13회째를 맞이한 한우축제와 같이 풍성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매년 각광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